

신나이가이멘의 넵사 - 캐주얼 소재로 호평

신나이가이멘에서는 새로운 염색 넵사(nep yarn)나 아크릴·면 혼방의 넵사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시방(試紡)도 의뢰가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소재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신나이가이멘은 규격번수의 넵사를 갖추고, 매사(賣絲)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작년의 판매량은 30t이었는데, 그 중 절반은 염색 넵사가 차지하고 있다.

넵사는 외부에 주문생산하여, 실을 뽑는 면과 혼방하여 넵사를 생산하고 있다. 넵사의 넵은 면, 양모, 폴리에스터, 견 등으로 만들며, 특히 폴리에스터로 만든 넵은 면으로 만든 넵보다도 염색이 쉽고 색도 선명하여 화려한 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카티온(cation, 양이온)화 면으로 만든 소재도 후염(後染, 제직후 염색)으로 주문이나 유행 등에 따라 원하는 색으로 염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원형편포(円形編布)의 캐주얼 소재로서 염색 넵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넵사의 번수는 20수 단사, 30수 단사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세번수가 될수록 실의 강력이 떨어지고 넵이 실에 단단히 맺히지 못하면 잘 떨어질 수 있어, 넵사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40수 단사까지가 넵사를 만들 수 있는 한계인 것 같다. ♣